

# 뜻과 획의 예술: 북한 서예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김미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박사 과정\*\*

김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과 교수\*\*\*

이 연구는 북한에서 “뜻과 획의 예술”로 표현되는 서예서체가 어떠한 시각문화적 특성을 띠는지 북한의 서체 이론을 분석해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서체는 1980년대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체 이론이 형성되어 개념과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지도자 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백두산 3대 장군’의 필체에서부터 ‘서사체’의 범주를 포괄하는 서예서체는 주민들의 생활 곳곳에 배치되어 북한만의 독특한 시각문화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내는 ‘주체미학’의 연장선상에서 당의 목소리는 서예서체로 시각화되어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서체는 700여 종에 이르며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의 서예서체를 분석하는 것은 변화하는 북한 시각문화의 흐름과 경험을 해석해내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주제어 북한, 서체, 서예, 타이포그래피, 시각문화

## I. 머리말

이 연구는 북한의 서체 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여, 북한 서예서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읽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뜻과 획의 예술(김정일, 1992: 160)”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서예는 문자를 넘어 서사자의 정신이 깃든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1년에 새 세기의 첫 태양절을 맞이해 ‘백두산 3대 장군’의 필체<sup>1</sup>를 지정하고, 지도자의 육필서체를 기념비화하였다. 북한에서 서체가 주목받기 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역사문화 전공에서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두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작한 것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던 시점과 중첩된다. 선전 선동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권력 이양기에 서체가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체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 속 시각문화와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인쇄매체, 영상매체, 온라인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문자와 서체는 생활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서체와 문화를 살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일상성을 살피는 것과 연관된다. 북한은 서체의 일상성과 반복성에 주목해 1980년대 이후 서예 이론가를 중심으로 서체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 연구에서 서체와 같은 미시문화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북한 연구는 정책적·학술적 접근이 활발해진 1970년대부터 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선전화’, ‘산업미술’과 같은 일상적 차원에서의 미시 시각문화도 연구되고 있지만,<sup>2</sup> 북한의 문화예술 관련 연구는 주로 대규모 공연예술에 주목해 왔고, 북한 서체와 관련된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북한 서체에 주목한 연구로는 서예서체(calligraphy), 활자서체(type), 디지털서체(font) 세 영역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가 있다.<sup>3</sup> 하지만 선행연구는 남한의 서체 분류를 기준으로 북한의 서체를 3가지 개별 영역의 범주 안에서만 분석하여, 북한 서체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에서는 캘리그라피(손뿔글씨)에 속하고, 북한에서는 서예의 범주에 속하는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와 같은 서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서예, 활자, 디지털서체의 3가지 영역 중 두 영역의 서체를 다룬 연구라 할지라도 영역 간의 관계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육필서체는 단순한 서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도자의

<sup>1</sup>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서체를 의미하는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명필체’로 표기되기도 하고(박영도, 2008; 오광섭 2014), 김정은의 서체는 ‘백두산형 장군의 명필체’로 지칭된 바 있다(로동신문 12/01/05).

<sup>2</sup> 북한 선전화, ‘산업미술’과 관련된 연구로는 박암중(2014), 최희선(2015), 김소연(2017), 김민수 외(2017, 2021), 류현국(2019), 박상태·김은정(2020)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sup>3</sup> 북한 서예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박병천(2001, 2004), 오명남(2001), 서영근(2008)이 있고, 활자와 디지털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병천(2005), 류현국(2019) 등이 있다.

육필서체는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해발서체’는 북한의 주요 표준 서체 중 하나인 ‘청봉체’의 시원이라 선전되었다. 또한 육필서체는 권력 이양기 당 기관지에서 지도자의 사진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지도자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서체의 육필성은 1988년 북한의 서체 명칭 및 유형의 분류 기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서체의 ‘형태’ 즉, ‘세리프(부리)’<sup>4</sup>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서체를 분류하는 국제적인 서체 분류 방식과 달리(도트, 2010), 북한에서는 손으로 서체를 ‘쓰는 방식’에 주목하여, 손으로 한 번에 쓰는 단필(單筆)은 ‘서사체’로, 여러 번에 걸쳐 그리는 복필(複筆)은 ‘도안체’로 구분하였다(최원삼, 1989; 오광섭, 2014). 따라서 육필성을 반영한 북한 서예서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북한 서체의 전반적인 지형도 안에서 이를 살피고자 하였다.

북한의 서체를 엄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북한의 서체 전문가가 제시한 서체의 개념과 이론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서체 이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 전후의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는 서체 이론을 비롯한 문헌자료와 담화문, 인터뷰와 같은 구술 자료, 그림, 사진 등의 시각자료다.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된 자료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하는 ‘내재적 관점’으로 북한 사회주의가 스스로 제시한 이념(이론)과 경험적 성과(서체)를 비교 분석하고(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시각문화적<sup>5</sup>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up>4</sup> “로마자 활자의 글씨에서 획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돌출선. 활자서체의 특이점과 활자의 수명 및 가독성 따위를 식별하는 데에 관계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sup>5</sup> ‘시각문화’라는 용어는 존 워커(John A. Walker)와 사라 채플린(Sarah Chaplin)의 저서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미술과 건축을 넘어 공예, 공연예술, 매스미디어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과 관련된 문화를 다루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워커·채플린, 2007). 이 연구에서는 서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고 형성하는 문화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II. 북한 서체 이론과 서예서체의 형성 과정

### 1. 북한 ‘문학예술’과 서체 디자인의 역사 · 문화적 맥락

#### 1) 북한 ‘문학예술’과 서체의 시원성

북한의 ‘문학예술’은 남한에서 문화예술이라고 칭하는 시, 소설, 영화, 연극, 미술과 같은 분야의 예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문학예술’ 관련 기관은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의 관할 대상이 된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이념을 대중에게 전달해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충성심을 고취하고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인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미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북한의 역사관을 반영한다. 북한은 역사 서술 과정에서 김일성이 체제와 사상의 시원(始原)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립학성 외, 2010)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원성(始原性)은 ‘주체미술’ 이론에도 서술된다. 김교련은 『주체미술총서1: 주체미술건설』에서 ‘주체미술’의 시원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그림 1).

주체미술의 시원을 밝힌다는 것은 주체미술의 역사적 흐름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주체미술의 면모를 갖춘 첫 원형이 어디에 있고 그 혁명전통이 언제 마련되었는가를 밝힌다는 것을 말한다. … 주체미술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되었다…(김교련, 1995: 5).

또한 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주체서예’에서도 혁명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시원성이 강조되는데, 책의 저자인 박영도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존재를 부각하고,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원을 언급한다.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대를 이어 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서예로 형상하심으로써 사상적대가 튼튼히 선 주체서예의 역사적 시원을 열어 놓으시었다(박영도, 2008: 15).



출처: 『주체미술 교육의 빛나는 50년』(1997).

**그림 1** 김형직의 '지원(志遠)'과 김일성의 '독립'



출처: 『영원한 태양의 해발』(2007).

**그림 2** 만경대 고향집에서 서예 '김일성장군만세'를 쓰는 어린 김정일

김형직에서 김일성으로 이어진 '주체서예'의 시원은 김정일로 이어져, 서체 이론에서는 김정일의 '백두산서체'가 김일성의 '태양서체'의 위대한 계승(로동신문 01/06/03)이라 칭송된다(그림 2).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주요 서체인 '청봉체', '붉은기체', '물결체', '궁체', '굽은체', '천리마체' 등의 사례에서도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의 시원성을 강조한다. 북한의 서체 이론에서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서체가 특정한 시원에서부터 유래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필체를 비롯한 서체가 구체적으로 혁명민족 전통의 시원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서체 이론에서 서체의 시원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의 권력이 공식화된 198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 2) 서체 창작 및 연구 주체와 주요 서체

북한의 서체는 언어학, 서예학, 미술사학, '산업미술(디자인)', 전자공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관할 아래 출판인쇄과학연구소, 인쇄공업대학, 미술대학 내에서 서체 연구 및 창작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체 연구와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야는 '주체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서예와 '산업미술'이다.

각 분야에서 서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면, 언어학에서는 문자의 개념과 서체의 유형을, 서예학에서는 서예의 전반적인 서체 이론과 필법을, '산업미

술'에서는 상표 및 포장 미술 등에 사용되는 글씨체를, 출판·인쇄 분야에서는 인쇄·공업 기술과 활자체를, 선전선동부에서는 직관물과 관련된 서체를,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문자 입력 프로그램 및 디지털서체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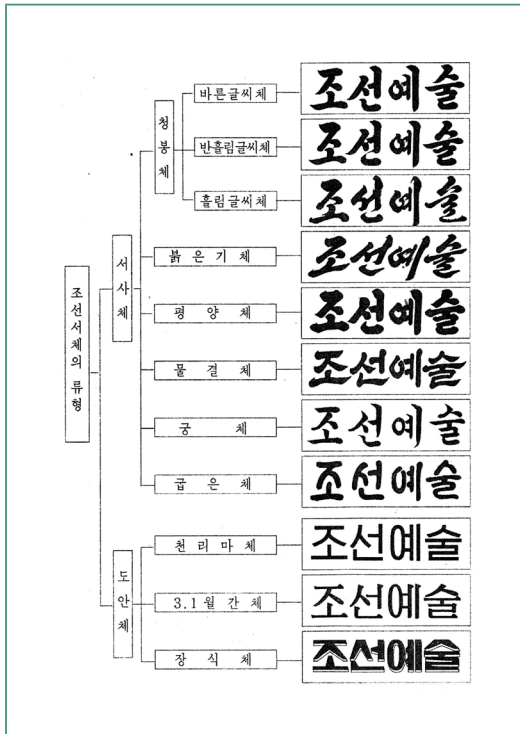
북한 서체의 보편적인 개념을 살펴보자면, 서체는 획의 모양, 글자의 구성, 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글씨의 모양새를 의미하며, 글씨체라고도 일컬어진다(김영일, 2009). 아울러 최근 북한의 서체는 서예서체와 디지털서체를 포함해 총 700여 종 이상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된다(로동신문 13/06/30). 서예 이론가의 분류에 따르면 북한의 서체는 크게 서사 방식, 즉 쓰는 방식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손을 이용해 단필(單筆)로 쓰는 '붓글씨체(서사체)'와 복필(複筆)로 그린 '그린글씨체(도안체)'로 나뉜다(그림 3). 오광섭(2014)은 북한 서체의 종류를 크게 서사체 6가지, 도안체 3가지인 총 아홉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700여 종으로 알려진 북한 서체의 대부분은 주요 서체에서 파생된 서체이거나, 새롭게 디자인된 디지털서체임을 추정할 수 있다.<sup>7</sup>

주요 서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사체'는 크게 '청봉체', '붉은기체', '평양체', '물결체', '궁체', '굽은체'로, '도안체'는 '천리마체', '3.1월간체', '장식체'로 나뉜다. 서체 이론에서 '청봉체'는 김정숙의 '해발서체'를, '붉은기체'는 김일성의 '태양서체'를 원형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되며 혁명전통이 강조되고, '물결체'와 '궁체'는 민족전통을 시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설명된다(역사과학 14/03). '평양체'는 서체가 자아내는 무게감과 박력으로 인해 구호를 비롯한 '직관 선동물'<sup>8</sup>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8), '굽은체(굽은획글씨체)'는 남한의 '판본체(板本體)'와 구별되는 서체로서, 전서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sup>6</sup> 여기서 전자공학과 관련된 조직은 평양정보센터(1986), 조선컴퓨터센터(1990)와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요 디지털서체는 두 과학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sup>7</sup>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수인 김사득은 700여 종의 서체를 쓰는 방식과 작업 방식에 따라 '붓글씨체'와 '인쇄용글씨체'로 크게 분류하고, '청봉체'족, '천리마체'족, '광명체'족, '붓글체'족, '장식체'족, '립체'족, '동심체'족, '필기체'족, '고전체'족, '물동체'족 등 10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한 바 있다(로동신문 13/06/30).

<sup>8</sup>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직관선동은 직관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로동신문 14/02/22).



출처: 『조선글서예』(2014).

그림 3 북한 서체 분류도

(박병천, 2001). 북한의 표준 서체 중 하나인 ‘천리마체’는 선전화나 구호, 출판물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조선예술 09/02), ‘3.1월간체’는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월간』(1936)의 제호 서체를 원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박영도, 2008: 25). 장식체는 출판물과 상표 도안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한에서는 서예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북한의 ‘도안체’가 서예 서체의 하위범주로 유형화(오광섭, 2014; 조선예술 03/10)되었다는 점이다.

### 3) 서체 디자인의 역사 · 문화적 맥락

서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체가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서체 이론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 서체와 관련된 문헌의 가치는 종종 서체의 다른 요소에 비해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체와 관련된 사유(ideas)의 중요성을 강조한 로빈 킨로스(Robin

Kinross)의 저술은 조형 양식과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서체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킨로스는 과거 타이포그래피 역사 관련 저술이 결과물에 대한 알팍한 감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비판하며, 다루어야 할 대상에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Kinross, 2004). 여기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인쇄 결과물 혹은 서체 자체가 아닌, 서서자와 서체 창작자의 생각이 담긴 사료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킨로스의 관점을 3가지 측면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첫째, 서체와 관련된 사유를 중심으로 한 서체사 연구 방식, 둘째, 근대성을 시대나 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인 프로젝트(a continuing project)”<sup>9</sup>로 해석하고자 한 측면, 셋째, 서체와 수용자의 관계를 강조한 측면이다.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 역사 서술에서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서체의 결과물과 동등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기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성질로서 근대성을 해석하여, 선구적 디자인에 가려져 있었던 다양한 서체의 가치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킨로스는 기존 타이포그래피 연구에서 수용자적 측면이 간과되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서체와 관련된 사유를 읽을 수 있는 서체 이론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살펴본 북한의 주요 서체 이론 자료는 북한의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중국 연변과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一本朝鮮人總聯合會) 발행 도서, 북한에서 발행한 서예학, 언어학, 출판·인쇄 과학, ‘산업미술’ 관련 문헌자료<sup>10</sup>와 지도자의 담화문 등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서예서체를 접하고, 창작해 본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하여, 북한 원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개인적 차원에서의 서체 경험을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과의 면담 자료를 수용자의 관점을 유추할 수 있는 보조자료이자, 북

<sup>9</sup>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근대성: 미완의 프로젝트(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에서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역사적 시대상을 상실”하였음을 설명한 바 있다(하버마스 외, 1995). 킨로스는 근대성을 하나의 “지속적인 프로젝트(a continuing project)”로 해석한 하버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타이포그래피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Kinross, 2004: 9).

<sup>10</sup> 김석철(1981), 최원삼(1985, 1989), 권중성(1987), 오광섭(1997, 2014), 박영도(2008), 김사득(2000), 김영일(2009), 김재홍 외(201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연속간행물 자료 등.



한 서체 이론의 교차 검토 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하였다.<sup>11</sup>

## 2. 서체 이론의 전개와 서예서체

### 1) 북한 서체 이론의 형성과 서예 부흥 배경

북한에서 1980년대를 전후하여 서체 이론이 형성된 데는 북한 대중의 문해력 향상과 민족문화 관련 정책의 영향이 있었다. 북한에서 문자는 북한의 혁명사상과 전통을 인민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 수단이다. 북한의 어문 체계 정립 활동은 해방 후 조선어학회 간사를 역임했던 이극로와 사전 편찬사업에 참여했던 김두봉 이외에 북한에서 활동한 조선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된 ‘문맹퇴치운동’이 있고(김창호, 1990), 이외에 한자 폐지, ‘말 다듬기 사업’ 등이 있다. 북한의 언어학자 김영일(2009)은 문자 없이 인민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역설하며,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중의 문해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북한에서 문자의 사용은 더욱 빈번해졌고, 문자의 형태인 서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민족성이 당의 이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1989년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담화<sup>12</sup>는 민족문화예술에 관한 북한의 관점을 보여 준다. ‘주체사상’, ‘주체문예이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점철되는 북한의 문화예술사상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의 민족문화예술정책과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북한의 전통은 재발견되었고, 새롭게 해석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을 구현할 새로운 예술로 주목받은 분야

<sup>11</sup>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번호 : IRB No. 1803/003-008. 면담 일시: 2018. 5. 14. 월. 14:00 ~ 16:18(총 2시간 18분), 면담 장소: ○○하나센터 상담실, 면담 인원 : 1명(북한이탈주민, 북한 직관물, 서체 전문가). 서체와 수용자의 관계는 후속 연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sup>12</sup>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민족문화유산 01/n.d.).

가 바로 서예였다(전영선, 2006: 292). 2014년 발간된 『조선미술사 2』에서는 1980년에 이르러 ‘주체미술’에 큰 전환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며, 당의 영도 밑에 서예가 적극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서술한다(김재홍 외 2014). 또한 그러한 계기로 주체 71(1982)년 1월 12일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이 어린 한 학생의 붓글씨 솜씨를 치하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어린 학생은 김하경이라는 평양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 학생으로 확인된다(렘병욱 외, 1997).

1980년대 이전 북한의 서예는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6개 분과 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다른 미술 분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예술 분야 중 하나였다(박병천, 2001).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평양미술대학에 서예 분과가 생기고 서예대전이 개최되는 등 서예가 대중화되면서, 북한에서 서예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미술론』에서 서예를 “뜻과 획의 예술(김정일, 1992: 160)”로 명명하며 서예는 명실상부한 ‘주체미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예가 부흥하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서예 이론의 정립이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사용해 온 서체의 명칭을 정리하고, 서체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에 최원삼, 오광섭과 같은 서예 이론가는 북한 서체의 명칭과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연구된 분야가 바로 북한 지도자의 필체였다. 김정일은 1985년 10월 4일 평양미술대학에서 아버지인 김일성의 필체를 연구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고(렘병욱 외, 1997: 2), 연구의 결과는 1985년 이후 생산된 서체 이론서에 구체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주체서예’의 시원은 김일성과 김형직의 필체를 중심으로 정립되었으며, 2001년 4월에는 김일성의 필체를 ‘태양서체’로, 김정일의 필체를 ‘백두산서체’로, 김정숙의 필체를 ‘해발서체’로 하는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가 명명되었다(박영도, 2008). 동시에 각종 서예 경연과 전람회에 김형직의 사상에서 명칭이 유래한 ‘지원(志遠)상’이 신설되었고, 서예는 강습과 ‘소조 활동’을 통해 사상 교화의 한 측면을 맡으며 대중화되었다(로동신문 13/08/17).

## 2) 서체 이론과 서예서체의 체계화

198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의 서예가와 이론가들은 이론서에서 북한의 서체사와 유형의 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서체 이론은 본격적인 ‘서예가 후비 육성’이 진행되기 전과 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에 발행된 김석철의 『우리 붓글의 기초』에서는 서예 이론을 세 쪽 정도로 간략하게 다룬 뒤 서예를 쓰는 자세와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면, 김정일이 필체 연구 지시를 내리는 1985년 전후로 발행된 서예 저술에서는 서예의 기초이론이 스무 쪽 정도의 분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훈예술가이자 평양미술대학의 서예 강좌장을 역임한 최원삼은 서예가 주목받기 시작한 1982년 이후부터 『서예』(1984), 『붓글씨』(1985), 『조선글자쓰기』(1988)를 연이어 집필하였다. 최원삼은 이후 역시 평양미술대학의 서예 강좌장을 맡게 되는 오광섭과 더불어 북한의 서체 이론과 유형 분류를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최원삼은 북한의 서체를 크게 ‘붓글씨체’와 ‘그린글씨체’로 나누었고, 이러한 분류는 훗날 오광섭이 북한의 서체를 ‘서사체(붓글씨체)’와 ‘도안체(그린글씨체)’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다. 최원삼이 제시한 서체의 분류는 서예 이론서임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원형이 되는 ‘도안체’와 ‘장식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서체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최원삼은 ‘붓글씨체’로 ‘청봉체’, ‘궁체’, ‘파임획글씨체’, ‘굵은획글씨체’를, ‘그린글씨체’로 ‘천리마 ㄱ·ㄴ체’, ‘3.1월간체’, ‘매듭체’, ‘장식체’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오광섭은 『주체서예』(1997)와 『조선글서예』(2014)를 집필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최원삼과 같이 서체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서체 이론은 기본적인 서예서체의 개념을 다루는 이론과 서예서체의 혁명적 시원 및 역사를 서술하는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령 김석철이 『우리 붓글의 기초』(1981)에서 기본적인 서예 이론을 충실히 다루었다면, 최원삼, 오광섭, 박영도는 혁명서예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오광섭은 『주체서예』(1997)와 『조선글서예』(2014)에서 서체를 분류하고 이를 도표화하였는데, 서체의 분류를 간략히 다룬 『주체서예』(1997)와 달리 『조선글서예』(2014)에서는 서체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고, 서체의 시각자료를 함께 제시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서체를 ‘서사체’와 ‘도안체’로 분류하였으며, 서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손을 중심으로 ‘쓰는 방식’을 제시하였다(그림 3). 앞서 언급한 대로 손으로 글자를 쓰는 방식인 육필성은 북한에서 서체를 분류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세리프를 기준으로 서체를 분류하는 국제 서체 분류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1988년 북한에서 서사체류(단필)를 청봉체 1호부터 4호로, 도안체류(복필)를 천리마 1호체부터 14호로 분류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또한 남한에서는 서예, 활자, 디지털서체 세 영역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분리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세 영역 간의 경계를 연결하여 사고하는 분절적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남한에서 서예서체의 주요 분류 및 명칭을 활자서체와 디지털서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북한에서는 ‘청봉체’, ‘천리마체’와 같이 서예 이론서에 나타난 주요 서체 분류 체계와 명칭이 그대로 활자서체와 디지털서체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홍 외, 2014; 오광섭, 2014).

이외의 서체 이론으로는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수인 김사득(2000)이 저술한 『위인의 명필체』가 있다. 김사득은 이 글에서 김정일의 ‘백두산서체’에 관해 쓰기 속도, 방식, 필체, 크기, 필압, 조형미로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저술하였고, 이를 통해 2001년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 선정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박영도는 현대에 형성된 ‘주체서예’를 서예의 “참다운 본보기”로 선정하고, 책의 순서에서 ‘주체서예’를 고대 및 중세 서예보다 앞에 배치하여 서예의 역사를 서술한 바 있다(박영도, 2008: 5). 그리고 김형직사범대학의 김영일(2009)은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와 주요 인쇄 서체를 언어학 개론의 내용에 포함하여 책을 집필하였다.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형성된 북한의 서체 이론은 최원삼과 오광섭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언어학자, 출판·인쇄 관련 이론가가 함께 참여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미처 수집하지 못한 북한의 서체 이론서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요 북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서체사의 큰 흐름과 이론적 특성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 III. 북한 서예서체의 시각문화적 특성

#### 1. 백두혈통의 육필서체와 시각연속성

##### 1) 몸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육필서체

20세기 이후 동서양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프로파간다(propaganda)<sup>13</sup>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체문예이론’, ‘주체미술’을 비롯한 미학 이론과 더불어 영화와 같은 각종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문화예술 선전 활동을 펼친 김정일은 1980년대 이후 혁명전통과 민족 전통을 구현할 대상으로 서예에 주목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서예 부흥기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필체 연구를 지지하였고,<sup>14</sup> 평양미술대학의 서예 강좌장인 최원삼을 필두로 백두혈통의 필체가 연구되고 집필되기 시작했다. 서체 이론의 구체화와 더불어 2001년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가 명명되기까지, 지도자의 필체는 사상의 본보기인 동시에 지도자의 몸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도자의 필체가 지닌 상징성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당을 대표하는 기관지에 승계자의 사진보다 육필서체가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변영옥, 2015),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의 주요 당 기관지이자 일간지인 『로동신문』에는 한동안 다음 권력 계승자인 김정일의 활동사진이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5개월 지난 1994년 12월 『로동신문』 1면에 갑자기 김정일의 친필 서한이 지도자의 이미지보다 먼저 게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사후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에서도 유사하

<sup>13</sup> 이는 냉전 시대 소련과 중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풍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김민수 외, 2021: 149).

<sup>14</sup> 1985년 10월 3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방문한 김정일은 김일성 친필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미술대학에서 서예가들이 수령님의 필체를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김정일, 2018).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4일, 평양미술대학을 방문해 이를 지시했다(변영옥 외, 1997: 2). ‘구호문헌’과 ‘구호나무’의 정확한 발견 시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눈여겨볼 점은 김정일의 지시를 전후하여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한 ‘구호나무’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구호나무’는 일제강점기 항일혁명군 대원들이 나무껍질을 벗겨내고 ‘구호문헌’을 쓴 나무인데, 북한의 주요한 체제 선전 대상 중 하나다. ‘구호나무’와 관련해서는 와다 하루키(2002), 스텝키 마사유키의 글과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게 반복되었는데,<sup>15</sup> 김정일 사망 며칠 뒤 『로동신문』 1면에는 김정일의 친필 서한 11점이 대거 등장하였다(로동신문 12/01/03). 권력 이양기 당 기관지에서 지도자의 친필이 사진보다 혹은 사진만큼 주요한 매체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북한에서 지도자의 필체가 단순한 글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지도자와 혈연관계인 사람의 필체에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칭송하는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북한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친필 ‘기념비서예’<sup>16</sup>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바위, 현판과 같이 특정한 표면에 새겨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의 필체는 종이와 같은 일반적인 “쓰기 표면”에 사용되는 서체와는 다른 권위와 지위를 지니게 된다(헤리스, 2013: 148).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 중 김일성의 ‘태양서체’와 김정일의 ‘백두산서체’는 친필로 기념비화되었으나, 김정숙의 필체는 사후 ‘구호나무’의 필체를 원형으로 한다고 선전되는 ‘해발서체’와 ‘청봉체’로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sup>17</sup>

북한에는 다양한 선전 예술이 존재하고, 그중에서 조선화와 같이 지도자의 형상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 재현화가 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는 북한의 모든 가정에서 모셔지고 있으며, 지도자를 재현한 이미지가 실린 책, 잡지, 신문, 지폐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기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재현을 향한 모욕을 곧 지도자에 대한 모욕(연합뉴스 17/03/25)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뜻이 확으로 구현된 지도자의 필체는 지도자를 재현한 이미지와 같이 모셔지고 있으며, 지도자의 필체를 가까이하는 것은 곧 지도자의

<sup>15</sup>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후의 기사(1994. 7. 7.~1994. 12. 16.)를 확인한 결과, 김정일이 김일성의 영결식과 추모식에 참석한 사진을 제외하면, 같은 해 12월에 친필 사진이 실리기 전까지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로동신문 94/12/16). 다만,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는 과정에서는 『로동신문』 1면에 활동사진이 먼저 게재된 후, 친필 11점이 게재되었다(로동신문 12/01/02).

<sup>16</sup> ‘기념비서예’는 당과 수령을 칭송하고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북한에서 새롭게 만든 서예 형식을 뜻한다(김재홍 외, 2014: 283).

<sup>17</sup> 물론 주요 건축물의 현판(편액)에 지도자의 필체를 남기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명필가들이 성문, 전각 등에 표지로 남겼던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글씨를 곧 그 사람으로 인식했던 전통의 계승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국학진흥원, 2009).

몸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된다.<sup>18</sup>

한편, 중국에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일방적으로 표현되는 메시지를 넘어 한 사람의 신체성이 확장된 행위로 여겨지는데(Yen, 2004), 이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필체가 지도자의 몸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현상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1921년 중국의 공산당이 창설된 이후, 1960년대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모택동(毛澤東)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으며, 그의 필체는 주민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았다. 중국의 서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상징이자 사회의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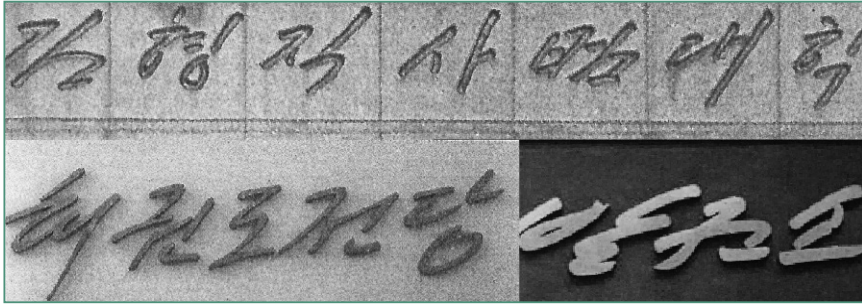
중국 사회주의의 필체 문화가 계승자를 달리하며 방식<sup>19</sup>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승되었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필체 문화는 백두혈통의 필체만을 강조하며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승되었다. 북한에서 필체는 지도자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인 동시에, 정통성을 세습하고자 했던 북한만의 특수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백두혈통 위인들의 몸이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되며, 백두혈통 존재 자체를 우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2) 사선의 속도감과 시각연속성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필체는 육필성을 강조하며, 세습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 육필서체의 세습은 단순히 쓴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서체의 사선적 ‘시각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북한만의 독특한 필체 세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의 필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백두혈통의 서체는 함께 놓고 살펴보면, 조형적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4). 삼대의 필체는 얼핏 보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유사하다. 그리고 세 가지 서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각성은 사선적 특성

<sup>18</sup>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기념비적으로 모시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 친필을 모신 현판과 친필비, 친필문주들을 정중히 세우도록 하시었다...수많은 친필비와 친필문주, 친필현판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는듯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면서...”(박영도, 2008: 30). 밑줄은 별도 표시.

<sup>19</sup> 중국에서 서예는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이었음에도 봉건 잔재로 배척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모택동 사후에도 장쩌민, 덩샤오핑과 같은 중국 지도자에 의해 필체를 선전하는 ‘방식’이 계승되었다.



출처: 『조선서예발전사』(2008); 로동신문 13/04/28.

**그림 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현판 필체 비교(위: 김일성이 쓴 '김형직사범대학' 현판, 아래 왼쪽: 김정일이 쓴 '태권도 전당' 현판, 아래 오른쪽: 김정은이 쓴 '발전소' 현판의 일부)

이 있다. 북한의 서체 이론에서는 '태양서체'와 '백두산서체'가 합리적인 가로쓰기 방식인 '경사글씨체'라고 묘사되고 있으며, 필체에 나타난 경사진 사선이 곧 '힘, 기, 속도감'을 나타낸다고 설명된다(박영도, 2008).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필체로 이어지는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북한의 “창작 기본 원칙”인 ‘속도전’을 형상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한중모, 2010: 289), 북한에서 지도자는 사회주의의 모범적인 전형과도 같기에 지도자를 상징화하는 필체는 곧 북한 필체의 전형이 되고, 북한의 사상과 이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속도전’은 전후 복구와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sup>20</sup>에 이르기까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형식으로 인식된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백두혈통’의 필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앞서 살펴본 필체의 육필성과도 관계된다. 필체가 곧 서사자를 상징하는 북한에서 같은 시각성을 지닌 필체로 글을 쓴다는 것은 곧 같은 혈육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절차와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체는 사람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서체 이론에서는 김정일이 권력 이양기에 자신의 필체를 부친의 필체로 바꾸고자 연습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sup>21</sup> 그러므로 백두혈통의 필체는 필적학에서 말하

<sup>20</sup> 천리마운동(1950~1960)과 만리마운동(2016~)은 각각 하루에 천 리와 만 리를 달리는 말을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주의 운동을 뜻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조.

<sup>21</sup> “자신의 필체를 대담하게 바꾸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글씨체를 익히고 세련시켜 그대로 재현하



는 뇌의 흔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학습하여 ‘만들어진’ 혈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필체에 나타난 사선의 시각연속성은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표식으로 작용한다.

## 2. 구호서체의 시각구술성

### 1) 시각 기호로서 북한의 서체와 의미화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언어(랑그)를 언어의 개념과 이미지가 만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이라 표현한 바 있다(소쉬르, 2012).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의 개념은 기의(記意, signifié)로, 청각 이미지이자 언어 이미지는 기표(記表, signifiant)로 치환되는데, 여기서 청각 이미지는 심리적 감각 작용들로 변환된 소리 즉, 소리의 심리적 흔적(l'empreinte psychique)을 의미한다(소쉬르, 2017: 272).

다만 소쉬르는 언어와 문자의 기호 체계를 중요하게 언급했음에도 음성 언어의 기호적 측면에 일차적으로 집중하였고, 문자 기호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은 해리스(Roy Harris)와 크레머(Sybille Krämer)와 같은 후속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중 해리스는 문자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구술 언어의 대리표기(representer)에 있다는 소쉬르(소쉬르, 2017: 136)와 기존 언어학의 관점에 반(反)하여, 문자 기호의 의미화(signification)와 시각성에 주목하였고, 크레머는 문자와 텍스트의 인식적, 인지적 차원을 포함할 수 있는 문자형상성(schriftbildlichkeit) 개념을 제시하였다(김남시, 2012: 22). 이러한 접근은 기존 문자 개념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문자의 다양한 현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는 것’과 ‘읽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이끌어 냈다.<sup>22</sup>

시였다.”(박영도, 2008: 31).

<sup>22</sup> 보는 것으로서의 ‘그림’과 읽는 것으로서의 ‘문자’라는 이분법적 대립 관계는 문자 언어를 구술 언어의 이차적 기호라 정의해 온 “음성 중심주의”의 뿌리 깊은 서구적 관점을 보여 준다.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문학과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접근은 이후 인문학과 언어학계가 문자의 가시성과 공간성에 주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쓴 *De la grammatologie*(1967) 이후 해리스와 크레머가 보여 준 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김남시, 2012: 18-19).

이외에 문자 언어의 형태인 서체와 문자 언어 내용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언어학뿐 아니라 서체학 그리고 디자인학에서도 이어져 왔다. 예컨대 오빙크(Ovink, G. W.)는 서체에 함축된 정서와 분위기, 다시 말해 서체와 내용의 연관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Ovink, 1938), 윙어르(Unger, Gerard)는 서체와 내용의 무관성을 논의한 바 있다(윙어르, 2014).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북한만의 확고한 서체관(觀)을 형성하였는데, 바로 뜻과 획의 일치를 서체의 기본 원칙으로 세운 점이다. 이는 문자의 뜻(기외)과 직관적인 표상(기표)을 문자의 형태인 서체(획)에 반영해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서는 기외와 기표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시각 기호인 서체를 통해 강화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글씨체원화창작에서는 뜻과 획의 일치, 이것이 기본이다. ... <풍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바람과 서리>라는 말인데 한창 자라는 식물이 세찬 바람과 서리를 맞으면 몹시 고통을 겪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활에서 겪는 고통이나 고통을 생각하고 형상화할 수 있다(조선산업미술 16/09). 밑줄은 별도 표시.

문자의 형태로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는 것은 서체와 내용의 연관성을 전제하는 것이고(Ovink, 1938), 형태가 지닌 시각적 이미지와 내용이 상호작용하여 ‘의미화(signification)’될 수 있음을 뜻한다(해리스, 2013). 의미화는 단순히 ‘읽는다’의 차원을 넘어 문자의 형태가 청각적 이미지 형성과 문자 기호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김정일이 제시한 서예 이론과도 연관된다.<sup>23</sup>

해리스가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서체는 당의 이념(기외)과 당의 목소리(기표)를 형상화한 시각적 기호이자, 문자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문자의 형태와 시각성을 통해 대중에게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의미화 작용

<sup>23</sup> 서예의 고유한 특성은 하나의 글자, 한 개의 단어, 짝막한 문장을 가지고 큰뜻, 심오한 사상을 피력하며 그 뜻과 사상이 글자와 함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겨오는 데 그 특성이 있다(홍파·리진미, 2014). 밑줄은 별도 표시.

을 돕는다.<sup>24</sup> 오늘날 북한에서는 서체 창작 과정에서 문자의 기호적 의미가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로동신문 13/06/30).

## 2) 구호서체의 청각이미지와 시각구술성

북한 주민은 당의 이념과 목소리를 다양한 ‘직관 선동물’과 구호, 매체에 사용된 서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직관 선동물’을 접하는 장소는 거리, 광장, 유치원과 학교의 교실, 농장과 사업장, 장마당에서부터 혁명유적지와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장소를 불문하고, 영상매체, 신문을 비롯한 출판·인쇄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서체를 접하게 된다. 북한 주민이 ‘직관 선동물’을 접하는 빈도는 서체를 접하는 빈도와 일치한다. ‘직관 선동물’에 쓰인 문자는 특정한 글자의 형태인 서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체는 대부분 ‘직관 선동물’에 사용되지만, 그중에서도 구호체로 많이 활용되는 서체는 서예서체인 ‘청봉체’와 ‘평양체’, ‘도안체’인 ‘천리마체’, ‘3.1월간체’ 등이 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청봉체’와 함께 ‘평양체’가 많이 사용된다(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8). 특히 ‘청봉체’는 백두혈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적지와 주요 기관에 주로 활용된다.

주요 서체를 활용한 북한의 구호와 ‘직관 선동물’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생활 곳곳에 배치되고, 당은 서체를 통해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여 드러낸다. 권중성(1987)은 문자의 형태가 쓰이는 대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서체의 형태가 당의 요구를 반영하고, 구호와 선전물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선동은 당의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며(김정일, 2017: 27), 주요 서체의 시각성은 당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 지도자와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한 북한의 서체는 문자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언어의

<sup>24</sup> “정일봉(백두산)에 새겨진 청봉체를 보면 마음에 와요. 부딪혀요.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만들거든요.”(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8).



출처: 왼쪽: 인민넷(검색일: 2022. 8. 30.); 오른쪽: 영화 <태양아래>(2015).

그림 5 북한 일상생활 곳곳에 배치된 구호서체

특성인 구술성 즉, 시각구술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북한에서는 당의 이념을 문자의 형태인 서체로 표현하여 대중이 시각화된 서체를 봄으로써, 당의 목소리를 듣고 당의 이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월터 J. 옹(Walter Jackson Ong)은 그의 저서에서 구술성과 문자성에 관해 설명하며, 구술성을 “목소리로 된 말(the spoken word)”이라 표현하였는데(옹,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서에서체는 ‘목소리로 된 시각성(the spoken visibility)’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 3. 서체 이론의 한계와 실험적 시도

#### 1) 서체 이론과 서체 디자인의 시각적 차이

북한 서에서체 중 서체의 시원성을 강조한 사례로는 ‘서사체’에 속하는 ‘청봉체’, ‘붉은기체’, ‘물결체’, ‘궁체’와 ‘도안체’에 속하는 ‘천리마체’, ‘3.1월간체’가 있다. 1980년대부터 구체화된 북한의 서체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체를 통해 체제의 정통성과 사상 및 이념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학예술’ 범주에 속하는 서체 이론은 당의 혁명전통성과 민족전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하지

<sup>25</sup> 월터 J. 옹이 말하는 구술성은 일차적 구술성, 즉 쓰기(writing)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술성을 의미한다(옹, 1995). 그러므로 원초적으로 입과 귀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구술성을 뜻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음성 언어를 시각화하여 드러내는 문자 언어(서체)의 시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각구술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만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서체 이론이 내포한 한계점은 서체 이론보다 서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서체의 이론과 디자인 사이에 시각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 주요 서체의 원형이 되는 서체와 원형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서예 및 활자서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서예서체로는 항일혁명 당시 김일성의 필체와 김정숙의 필체를 원형으로 형성되었다는 ‘붉은기체’와 ‘청봉체’가 있다. ‘붉은기체’는 김일성이 항일혁명 시기에 <반일인민유격대> 깃발에 썼던 글발과 ‘혁명적 구호문헌’에 시원을 두고 있다(오광섭, 2014). 그리고 ‘청봉체’는 북한의 혁명전통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서체로서, 1936년에 김정숙이 항일혁명 대원들과 함께 ‘청봉 숙영지’에 남긴 서체를 시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설명되는 서체다.<sup>26</sup> ‘청봉체’는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는 시기, 『조선문화어사전』에 서체의 명칭이 수록되기 시작했고(사회과학출판사, 1973), 1990년대 이후 김정숙과 항일혁명군이 쓴 구호에서 유래하였다고 선전되었다. 하지만 ‘구호나무’에 ‘해발서체’가 쓰였다고 전해지는 1936년과 청봉 서예체와 활자체가 대중화되는 1990년대 사이에는 큰 시차가 존재하고, 이에 서체 이론과 시각성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했다(그림 6).

‘해발서체’와 청봉 서예체, 청봉 활자체 사이의 시각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봉 서예체는 같은 붓글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법이나 결구법에서 차이를 보였고, 청봉 활자체, 디지털서체와는 부리와 획의 두께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봉 서예체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바른글씨체와 비슷한 서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기존 서체와의 유사성은 청봉 활자체에서도 발견되는데, 청봉 활자체는 출판인쇄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편성리론과 실천』에 실린 ‘청조체’와 상당한 시각 유사성을 보인다(김응섭 외, 1966).

이러한 시각적 차이는 비슷한 시기를 원형으로 하는 ‘붉은기체’, ‘3.1월간체’의

<sup>26</sup> ‘청봉체’는 북한의 3대 표준 서체 중 하나로 인식되며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백두산 3대 장군’의 교시말씀판, 김일성주의연구실, 혁명사적관, 수령의 노작, 신문, 잡지, 각종 도서출판, 구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영일, 2009).

분류	붉은기체	청봉체	3.1월간체
시원			
서체			

출처: 조선중앙TV; 『조선글서예』(2014); 로동신문 01/06/17; 금수강산 95/; PIC폰트집(2001).

**그림 6** 서에서체 시원과 서체 비교(좌: 붉은기체의 시원인 ‘반일인민유격대’ 깃발과 ‘붉은기체’ 서예체, 중간: ‘청봉체’의 시원인 ‘구호나무’의 ‘해발서체’와 청봉서예체, 청봉활자체, 우: ‘3.1월간체’의 시원인 기관지 표지와 ‘광명체’, ‘3.1월간체’)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특히 ‘3.1월간체’는 항일혁명기 백두산 밀영에서 김일성이 발행한 조국광복회지 『3.1월간』(1936)의 제호 서체에서 유래했다고 설명되는데, 실제 『3.1월간』(1936)으로 소개된 표지의 제호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3.1월간체’와의 시각유사성은 다소 떨어진다. 예컨대 기관지의 제호는 한자를 붓글로 쓴 ‘서사체’이고, 현재 사용되는 ‘3.1월간체’는 ‘도안체’인 ‘광명체’, 남한의 순명조체와 유사한 서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체 이론에 서술된 주요 서체는 제시된 시원 즉, 원형과 일정한 시각적 차이를 드러내는 특성을 보인다.

## 2) 북한 서체의 실험적 시도와 변화

오늘날 북한의 서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수 김사득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서체는 700여 종에 이른다(로동신문 13/06/30). 북한 서체의 다중화는 혁명민족 전통에 기반을 둔 서체 이외에도 북한에서 다양한 서체가 제작 및 이용되는 정황을 짐작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주체서예’ 및 서체 이론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몇 서체와 그 현상에 주목해 변화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체서예’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요 서예서체를 기본으로 하되 변화를 준 변체, 둘째, 서예서체 중 ‘도안체’에 속하는 ‘장식체’, 셋째, ‘산업미술’에서 도안체로 사용된 서예서체다. 주요 서예서체에 기반을 두고, 필압과 결구에 변화를 준 변체는 1985년 이후 이루어진 서예전람회에 다수 출품되었다. 이는 ‘청봉체’를 비롯한 서예서체를 다채롭게 발전시키고(박영도, 2008: 47), 인민의 미학 정서적 요구에 맞춰 창작적 개성을 투영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반영한 것이다(조선예술 09/03). 물론 서체의 근본적인 내용과 창작 목적이 당의 사상과 이념을 강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변체는 서예 교본에서 제시하는 주요 서예서체에 개인의 창작성을 부분적으로 투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 서예서체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에서 서예에 속하는 ‘장식체’는 그 수량과 종류를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조선예술 03/10). ‘장식체’도 기본적으로 정치사상과 교양을 위해 제작되지만, 그 형태는 북한의 다른 어떤 서체보다도 독창적이고 다채롭다. 아울러 다른 서체들보다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여 형상화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예컨대 ‘입체고구마체’는 오직 고구마의 속성에 주목해 서체의 형태를 시각화하였으며, ‘장식술입체’는 술잎의 조형적 특성에 착안해 서체를 형상화하였다(그림 7).

북한 서예서체에 나타난 또 다른 실험적 시도로는 ‘산업미술’ 분야에서 상표 혹은 간판에 활용하는 다양한 ‘도안체’가 있다. ‘산업미술’ 분야의 서체는 다른 서체와 달리, 정치·사상적 교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서체가 표현해야 하는 내용이 당의 사업이나 구호가 아닌, 창작하는 대상에 한정된다는 것은 ‘산업미술’ 도안 서체에 일정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미술’이 지닌 특성과도 연관되는데 ‘산업미술’에서 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 및 추동하고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김정일, 1992). 이처럼 북한에서 다양한 실험적 서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당의 사상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 립체고구마체      장식슬임체

출처: PIC폰트집(2001).

그림 7 립체고구마체, 장식슬임체

위해 변화와 창작적 개성을 추구했다는 데 있고, 둘째는 ‘산업미술’과 같이 창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디자이너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었다는 데 있다.

정권이 교체된 2011년부터 북한의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서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작 프로그램과 기술이 도입되며 작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서체는 한편으로는 수령과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여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친근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북한은 높아져 가는 사람들의 문화예술 수준과 그에 따른 요구를 인식하고, 더욱 새롭고 다양한 서체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서체 이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sup>27</sup> 이에 북한에서 서체의 다양화와 변화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로빈 킨로스는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근대성을 특정 창작자나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으로(a continuing project)’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북한 서체에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의 실험적 시도이자 근대성의 표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서체는 혁명민족 전통을 반영한 ‘주체서예’를 주요 이론적 근거로 삼는 동시에 실험적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며, 북한 주민의 시각 경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up>27</sup>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사람들은 보다 높은 문화정서생활을 지향하고 있으며 출판물에서의 서체적양상도 더욱 다채롭고 새로워질것을 요구한다.”(조선예술 03/10).



#### IV. 맺음말

이 연구는 북한의 서체 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여 북한 서예서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서체가 지니는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서체는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꾸리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 곳곳에 배치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고, 자주 오가는 곳에 어김없이 자리 잡았다. 또한 생활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북한 주민의 눈과 손에 익숙해졌다.

북한의 서체는 1980년대부터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분류되었고, 이론이 정립되었다. 서체 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배경에는 핵심 사상인 ‘조선민주제일주의’와 서예의 대중화가 있었고, 유일영도 체제 아래 권력 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북한의 서체 이론가들은 북한 서체의 이론을 서술하는 동시에 ‘손’을 중심으로 서체를 나누는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다. 한 번에 쓰는 서체를 ‘붓글씨체(서사체)’로, 여러 번에 걸쳐 그리는 서체를 ‘그린글씨체(도안체)’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서체 분류는 1988년 이후 활자서체와 디지털서체를 분류하는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체 이론에서는 손으로 쓰는 서예서체의 육필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강조는 범 체제적으로 서예 강습과 ‘소조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필체의 중요성이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된 후,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필체를 ‘백두산 3대 장군 명필체’로 명명하며 기념비화하였다. 육필서체를 서사자의 몸이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하는 필체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육필서체를 유일사상 체계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필체의 사선적 시각성을 세습하며 북한만의 독자적인 필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청봉체’와 같은 북한의 주요 서예서체는 당의 목소리를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서체의 형상과 이론 사이에서 시각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서체가 다종화되는 현상과 실험적 시도에 주목하여 오늘날 북한 서예서체의 변화 양상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며, 남북한의 용어 차이와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남한의 레터링, 활자, 타이포그래피에 해당하는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부분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서예사를 제외한 북한의 활자사와 출판·인쇄 과학 분야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북한의 인쇄기술과 활자사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북한의 서체를 비롯한 시각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순간을 깨닫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사용되는 서체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 북한 서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가 북한 사회와 시각문화의 흐름을 짚어 내고,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2년 6월 15일 | 심사일: 2022년 10월 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 1. 논저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북한연구방법론』. 파주: 한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권중성. 1987. 『문자학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교련. 1995. 『(주체미술총서1) 주체미술건설』.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김남시. 2012. “문자 형상성: 문자와 그림의 대립을 넘어서.” 『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4호, 17-24.
- 김미혜. 2018.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형성 과정과 시각문화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민수·이정은·김미혜, 2017.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개발 연구.” 『통일과 평화』 제9권 2호, 185-216.
- 김민수·이정은·이슬·김미혜, 2021. “창작과 표현으로 본 북한 선전화: 1950년대 이후 북한 선전화 양식의 형성과 변화.” 『아시아리뷰』 제11권 1호, 147-179.

- 김사득. 2000. 『위인의 명필체』. 평양: 금성청년종합출판사.
- 김석철. 1981. 『우리 붓글의 기초』. 도쿄: 조선청년사.
- 김소연. 2017. “북한포스터에서 나타나는 여성 도상: 1952년부터 1989년까지 포스터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18권 4호, 29-39.
- 김영일. 2009. 『어음 및 문자론』.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 김응섭·김승렬·리규정·김희동. 1966. 『편성리론과 실천』.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 김재홍·최동준·리월송·박일천·강희철. 2014. 『조선미술사 2』. 평양: 2.16예술교육출판사.
- 김정일. 1992. 『미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7.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8. 『대성산혁명렬사릉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창호. 1990. 『조선교육사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철민·장연희. 2007. 『영원한 태양의 해발』. 평양: 평양출판사.
- 도드, 로빈 저. 김경선 역. 2010.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구텐베르크부터 디지털 폰트까지』. 홍디자인.
- 럼병옥·김삼근·한경보·전관중·정영금. 1997. 『주체미술교육 빛나는 50년』.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 류현국. 2019. “북한 『국어』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우리글』 유치원용과 『국어』 인민학교 제1학년부터 제4학년 교과서의 분석.” 『Design Works』 제2권 2호, 30-42.
- \_\_\_\_\_. 2019. “북한 정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북한 스타일 (1945~2019): 시대구분으로 본 북한 선전화의 창작과 그 특징.” 『Design Works』 제2권 1호, 26-39.
- 리광섭·최원삼. 1988. 『조선글자쓰기』. 평양: 조선문예출판사·중국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림학성·김화중·허중호·문영호·최동언·윤국일·장우진·한석봉·리행호·전하철·손동원·고철훈·조희승·조대일·리기성·손수호·홍철화·공명성·송현원. 2010. 『백두산3 대장군 혁명력사연구논문집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병천. 2001. “북한 서예술의 동향분석과 전망.” 『동양예술』 제3권, 1-32.
- \_\_\_\_\_. 2004.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한국-북한-중국 우리 민족의

- 문자를 대상으로.”『동양예술』 제9권, 302-350.
- \_\_\_\_\_. 2005. “남북 한글폰트의 글꼴용어와 조형성에 대한 비교고찰.”『한국어정보학』 제7권 1호, 66-76.
- 박상태·김은정. 2020.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한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의미작용 분석: 2011년~2019년 포스터를 중심으로.”『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21권 64호, 139-148.
- 박암중. 2014. “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4권 1호, 851-862.
- 박영도. 2008. 『조선서예발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변영욱. 2015. 『김정은.JPG』. 파주: 한울.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소쉬르, 페르디낭 드 저. 김성도 역. 2017. 『소쉬르의 마지막 강의: 제3차 일반언어학 강의 1910~1911: 에밀 콩스탕탱의 노트』. 민음사.
- 서영근. 2008. “중국 조선민족 서풍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스즈키 마사유키. 1993. “특집: 북한의 권력승계와 김정일체제의 정책전망; 김정일의 지도력과 정책전망: 구호나무 「발견」 과 그 교양사업의 전개를 중심으로.”『안보연구』 제23권, 75-97.
- 오광섭. 1997. 『주체서예』.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_\_\_\_\_. 2014. 『조선글서예』.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 오명남. 2001. “북한의 한글 서체 형성과정과 서체 특성: 청봉체를 중심으로.”『동양예술논총』 제5집, 49-70.
- 웅, 윌터 J. 저. 이기우·임명진 역.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역. 2002. 『북조선: 규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 윌커, 존 A.·사라 채플린 저. 임산 역. 2007. 『비주얼 컬처』. 루비박스.
- 윙어르, 헤라르트. 2014. 『당신이 읽는 동안』. 워크룸 프레스.
- 전영선. 2006.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 역락.
- 최원삼. 1985. 『붓글씨』.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_\_\_\_\_. 1989[1984]. 『서예』. 도쿄: 학우서방.
- 최희선. 2015.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과정 고찰.”『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제14권 4호, 57-70.
- 하버마스, 위르겐·케네스 프래프턴·로절린드 크라우스·더글러스 크림프·크레이그 오웬스·그레고리 L. 울머·프레드릭 제임슨·장 보드리야르·에드워드 W. 사이드 저.

- 이기우 역. 1995. 『포스트모던 문화』. 전주: 新亞出版社.
- 해리스, 로이 저. 김남시 역. 2013. 『문자의 기호들』.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한국국학진흥원. 2009. 『뜻이 담긴 현판 편역』.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 한중모. 2010.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홍파·리진미. 2014. 『미술교수참고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Derrida, Jacques. 1967. *De la grammatologie*. Paris: Minuit.
- Kinross, Robin. 2004. *Modern Typography, an Essay in Critical History*, London: Hyphen Press.
- Ovink, G. W. 1938. *Legibility, Atmosphere-value and Forms of Printing Types*. Leiden.
- Yen, Yuehping. 2004. *Calligraphy and Power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London: Routledge.

## 2. 일간지, 월간지 기사와 칼럼

- 구정훈. 2009. “〈천리마체〉 글씨의 조형적구성방법.” 『조선예술』 2월 5일, 55.
- 김사득·김대일. 2003. “장식서체의 직관성의 풍만한 정서적표현력.” 『조선예술』 10월 5일, 57-59.
- 김사득. 2013. “글씨체와 우리 생활.” 『로동신문』 6월 30일, 5면.
- 리운찬·김사득. 2001. “위대한 장군님의 명필체-〈백두산서체〉.” 『로동신문』 6월 3일, 4면.
- \_\_\_\_\_. 2001. “백두산녀장군의 명필체-〈해발서체〉.” 『로동신문』 6월 17일, 4면.
- 리혜련. 2016. “일부 단어들에 대한 글씨체원화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 『조선산업미술』 9월 1일, 14면.
- 림현숙. 2012. “백두산형장군의 명필체.” 『로동신문』 1월 5일, 2면.
- 백성근. 2013. “전국서예강습이 진행되고있다.” 『로동신문』 8월 17일, 5면.
- 본사기자. 199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2월 16일, 1면.
- \_\_\_\_\_. 201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1월 2일, 1면.
- \_\_\_\_\_. 20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월 3일, 1면.
- \_\_\_\_\_. 2014. “직관선동 활발-미술부문의 창작가, 교원들.” 『로동신문』 2월 22일, 4면.

- 오은숙. 2009. “서예가의 창작적개성.” 『조선예술』 3월 15일, 68.
- 정성숙. 2001.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민족문화유산』 (n.d.).
- 조선중앙통신. 2013. “은정어린 손길아래 멋있게 솟아난 만포연하발전소.” 『로동신문』 4월 28일, 3면.
- 한효성. 2014. “조선봉건왕조시기 물결서체의 발생과 그 서체학적특징.” 『역사과학』 3월 17일, 55-56.
- 본사기자. 1995.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3.1월간》.” 『금수강산』 (n.d.), 3-4.
- 한효성. 2014. “조선봉건왕조시기 물결서체의 발생과 그 서체학적특징.” 『역사과학』 3월 17일, 55-56.

### 3. 온라인 자료

- 김성혜(인민넷). 2014. “서방기자들 볼 수 없는 조선: 거리행진집회.” <http://korean.people.com.cn/78529/15474865.html>(검색일: 2022. 8. 30.).
- 연합뉴스. 2017. ““北지도자 사진 지폐 훼손 말라”...러시아, 北관광 행동지침”<https://www.yna.co.kr/view/AKR20170325046600014?input=1195m>(검색일: 2022. 8. 30.).
- 조선중앙 TV.
- 통일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DB).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표준국어대사전.
- PIC폰트집(2001).

## Abstract

# The Art of Meaning and Stroke: Visu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alligraphy Letter Style

Mi-Hy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North Korean letter style theory and design in order to explore the significance and visu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ir calligraphy letter style within a historical context. Since the 1980s, the importance of leader's handwriting has emphasized as the concepts and types of fonts have been formed and systematized. As an extension of the 'Juche' (주체) aesthetics, which contains socialist content in a national form, the party's voice was visualized in calligraphy letter style and delivered to the public. Today, North Korean letter styles are diversifying with more than 700 types. Analyzing North Korean calligraphic letter style provides a starting point in interpreting the changing flow and experiences of North Korean visual culture.

**Keywords** | North Korea, letter style, typography, calligraphy, visual culture